

2. **깜짝인터뷰 - 부산 동주대 도서관 김연희 사서**

지난 2002년 8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눈물많은 초인>이라는 오페라 공연이 있었다. 오페라가 울려 퍼지는 동안, 한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과 독재행각 등에 반대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의 오페라 공연 <눈물많은 초인>이 공연되는 것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부산 동주대 도서관에 근무하는 김연희 사서라는 소식을 접하고, 오페라 공연 찬반여부나 이념적 논쟁의 시각을 배제하고, 도서관인의 한 사람으로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연희 사서를 만나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우선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런 운동에 관심은 있었지만, 소심한 편이라 직접 참여를 해 본적은 없었다. 그런데 휴가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마침 이러한 시위를 한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해 보자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았는가?

처음에 사람들 많은데 서 있다는 것이 용기가 필요했지만, 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생을 다 바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일상 생활 중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일부를 투자해 이러한 운동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 평생을 이러한 운동에 몸바쳐 일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러한 시위가 있는지도 알게 된 것이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작업하는 친일인명사전 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 그 계기는?

생각과 행동이 단순하다.(웃음)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고, 그르다 생각하면 그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다가 민족문제 연구소를 알게 되어, 역사를 규명하는 일에 조그만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다.

친일인명사전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언론지상에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적 특수성이 어느 정도 작용했던 거 같다. 사서로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일터로 적용을 하고 있는가?

발기인으로 참여했을 당시는 문정과 학생이었다. 열심히 한 것도 없었는데 오마이뉴스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다. 개인적인 관심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사서라는 전문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꼭 알아야 하고, 알려주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수서과에 요청을 하거나, 여건상 수서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증을 해서 비치하는 경우도 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연희 사서의 아름다운 모습

마지막으로 이 운동을 바라보는 도서관계의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설득, 동참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다. 다른 도서관 동료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 모두 함께 하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운동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틀니바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도서관이라는 곳이 사회의 요구에 의해 생겨난 곳인 만큼 도서관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다.

■ 정리·사진 : 박진우(도서관문화 편집실)